

기획 김달진미술연구소

미술의 범위를 논하지 말라

고가의 예술품,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 힘든 그림, 몇몇 경제인들의 투자 대상. 나와는 거리가 먼 예술장르.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미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필링을 통해 받아들이면 되는” 것뿐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달진미술연구소의 김달진 소장이다.

미술은 어렵고 비싸다?

김달진 소장은 “일반인들이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어렵다는 것과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경험해보면 미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술이 어렵다는 것은 그 그림을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읽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그저 ‘좋다’고 느끼는 음악을 듣는다. 내가 그 음악의 구체적 정보보다 사실관계를 모른다 해도, 필링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나? 미술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똑같이 화폭에 검은색 물감이 칠해져있다고 해도 미묘한 색의 차이, 또 질감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이 존재한다. 그 중에 자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그림을 좋아하면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느끼면 된다.”

내가 저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림에서 좋다는 감정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비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술품은 물론 다른 예술장르와 다르게 단 하나의 오리지널 작품이 존재하고, 문학이나 음악보다 공유가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비싼 그림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 소수일 뿐이다. 아직도 많은 화가들은 어렵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감상자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인사동에는 많은 전시회들이 무료로 열리고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게 미술이다.”

김달진 소장은, “또한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 미술이다. 당장 오늘 입은 옷의 디자인, 내가 고른 넥타이의 칼라 등 모든 것은 미술의 영역과 밀접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과 울타리만 벗어나면,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것 이야 말로 미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이라는 인식도 비판했다. 미술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예술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그림은 투자 가치도 높지 않다. 몇몇 왜곡되고 과장된 사례들 때문에 미술을 돈 벌기 수단, 투자대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야 한다. 그것이 미술이다.”

한국현대미술의 아카이브, 미술정보의 총집합체

이렇게 미술을 ‘쉬운 것’이라 말하는 김달진 소장. 그가 자신의 미술에 대한 가치관과 모든 자료, 능력을 쏟아부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달진미술연구소다.

2001년 처음 문을 연 이 연구소는 미술에 관한 연구소답게, 한국미술정보의 총 집합체다운 면모를 자랑한다. 미술과 관련된 온갖 정보를 수집, 보관함은 물론 대중들에게 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국내외 미술관련 소식 및 칼럼 등을 수록, 무료로 배포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발간하는가 하면, 미술정보 웹사이트 달진닷컴(www.daljin.com)과 미술서적 전문 온라인쇼핑몰(www.daljinbook.com)을 운영한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국내외 미술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미술정보센터에서는 근현대 미술 단행본, 정기간행물, 작가화집, 학회논문 등 다양한 자료가 있는 열람실을 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트투어 프로그램, 미술 분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등도 진행한다.

이렇게 미술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가 한곳에 모인, 미술관련 종합 연구소라고 해도 부족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 모든 자료는 김달진 소장의 개인 수집품에서 시작했다. 김달진 소장은 “중학교 때부터 잡지에 나온 화가들의 그림 등 미술 자료를 모아왔다. 그때 어른들이 ‘너 그런 거 좋아해서 커서 먹고 살수는 있겠느냐’고 말씀하시곤 했다.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 ‘미쳐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사회 영역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삶이 아닐까 한다.”

김달진 소장은 앞으로도 미술자료 수집과 연구, 보존 등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1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운영하는 김달진 소장
2·3·4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한국미술정보센터. 근현대 미술관련 자료가 보관, 전시되어있고 열람실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만드는 미술계 대표 무가지 ‘서울아트가이드’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자랑하는 활동 중의 하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발간이다. 2002년 1월 창간한 이 월간지는 현재 미술계의 대표 정보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전국에 3만부가 발행되는 대표 무가지로, ‘무가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될 만큼 탄탄한 내용을 자랑한다. 전국의 화랑, 미술관 등에 무료 배포되며, 우편료 부담을 통해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시회 소식 등 미술현장 소식은 물론, 미술인들의 칼럼이나 에세이, 김달진 소장이 직접 만난 미술인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